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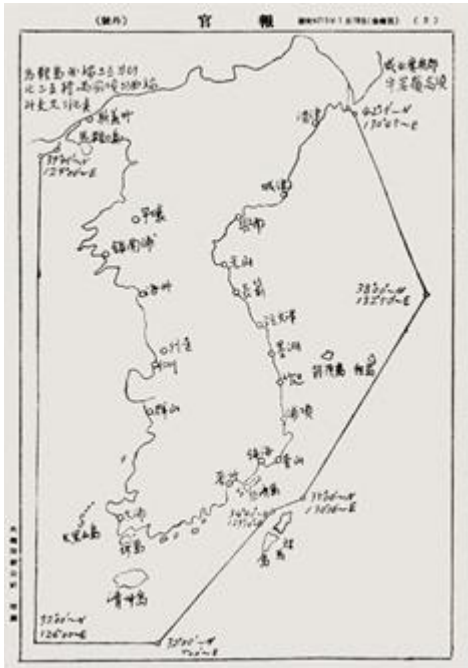
한일 중학생이 다케시마(독도) 문제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1. 한일 중학생이 다케시마(독도) 문제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2. 한국 중학생들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여기고 있는 10가지 증거
 - 1)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있는 '우산국'
 - 2)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인다"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있는 우산도
 - 3) 1696년 일본에 건너온 안용복(安龍福)이 돗토리번(鳥取藩) 번주(藩主)와 교섭
 - 4) 에도(江戸) 막부는 1695년 12월, 돗토리번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물었다.
 - 5)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인정한 문헌, 1667년에 쓰여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
 - 6)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는 조선 영토로 하고 있다.
 - 7) 1785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에 그려진 '조선의 땅'
 - 8) 1877년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竹島外一島本邦關係無之)"와 『이소다케시마약도(磯竹島略圖)』
 - 9) 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와 「칙령 제 41호(勅令第四十一號)」의 석도(石島)
 - 10) 일본은 1905년 한국의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했다
3. 맺은 말
 - 1)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는 왜 역사문제가 일어나는가?
 - 2)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우산도와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의 우산도
 - 3) 문헌비판의 중요성
 - 4) '역사인식'에서 요구되는 '과거청산'
 - 5) 한일 간 상호이해 수단으로서의 다케시마(독도) 문제

1. 한일 중학생이 다케시마(독도) 문제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가 일어난 것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공해상에 '이승만 라인'(한국에서는 이것을 평화선이라고 말합니다)을 설정한 것이 발단입니다. 1905년 1월 28일에 일본령으로 편입되어 있었던 다케시마가 '이승만 라인'(사진①)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케시마 문제는 한국정부가 '이승만 라인'을 선언하며,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한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진①】'이승만 라인'(「관보」, 1952년 1월 18일 호외)

더욱이 1953년 12월 한국정부는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승만 라인'을 침범한 일본어선을 나포 및 억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후, 한국정부는 다케시마를 점거 및 해양경찰을 주둔시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안했습니다만, 한국정부는 10월 28일 다음과 같은 각서를 일본정부에 보내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독도는 태고 적부터 한국의 영토이며 지금도 한국 영토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려는 일본정부의 제안은 사법적 포장에 의한 허위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계책에 불과하다.
“독도는 일본 침략으로 희생된 최초의 한국 영토이다”

이 후, 다케시마 문제는 한동안 휴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1996년 2월 한국정부가 다케시마에 접안시설을 건설한다는 발표를 기점으로, 또 다시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2000년 3월 16일 시마네현(島根県) 의회가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을 요구하며 '다케시마

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한일 대립은 한층 격화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0년 3월 23일 <한일관계에 관련하여 국민께 전하는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 그것은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것이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언한 2월 22일은, 100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날이다. 이것은 참으로 과거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다”

여기에서 나타난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인식'은, 1954년 10월 28일 대한민국 주일(駐日) 대표부가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의 내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인식'에서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한 것은, 1905년 1월 28일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인식'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케시마 문제는 1905년 1월 28일 일본정부가 각의(閣議)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가 일본령이 되었을 때, 실제 다케시마는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의 것인가? 그 사실적(역사적 권원) 규명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다케시마 문제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분명히 밝히는가? 그것이야말로 역사연구의 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케시마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일본과의 외교를 대비하기 위해, 2005년 4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올바른 역사정립기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6년 9월에는 <동북아역사재단>으로 보다 큰 연구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여기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 '일본해 호칭문제'(동해문제), '고구려사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시마네현은 2005년 6월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를 설치하고, 이 후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와 '계발(啓發)활동'을 이어나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가 다케시마 문제에 관련한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領土主權對策企劃調整室)>을 발족시킨 것은 2013년의 일입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비판적이었던 일본정부 또한 조례가 성립한 즈음부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동시에 국제법상에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가 없는 채 행하여진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이와 같은 다케시마의 불법점거에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공표한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입장>에서는, 한국정부의 정치적 태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수호해 갈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반대로 한국측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2020년부터 각 학교마다 다케시마 문제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 또한 한일 간 새로운 대립의 시작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2011년 2월 문화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의 내용체계>를 공표했으며, 그 해 12월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도교육 부교재를 개발하여, 영토교육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거의 매년 독도교재 개정판을 만들어, 시행착오를 거듭한 와중에도 착실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2011년에 출판된 『영원한 우리 땅 독도』와 『독도 바로 알기』에는 독도교육의 목적이 “일본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2019년에 <동북아역사재단>에 의해 편찬된 『체험활동 학습지』로 말미암아, 한국 학생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독도교육 결과 때문인지, 2018년에는 시마네현 소재 중학교 앞으로, 한국 중학생들이 “독도는 한국령이다”라고 쓴 엽서나 편지가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엽서나 편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개발한 『독도 바로 알기』의 독도교재를 그대로 베껴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저는 한국 중학생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써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한국 중학생들이 쓴 편지가 시마네현 중학교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학생들이 쓴 편지를 일본 중학생들에게 보여 준다고 해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일본 중학생에게는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보낸 편지 또한 한국 중학생들이 <동북아역사재단>의 어른들이 쓴 『독도 바로 알기』를 무비판적으로 읽고, “독도는 한국의 영

토"임을 "일본인에게 설득할" 목적으로 보내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필시 한국 중학생들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교육받았어도 『독도 바로 알기』에서 증거로 든 문헌을 읽지 않은 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없는 글을 편지로 보내더라도, 일본 중학생들이 이해하기가 만무합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시마네현 중학생들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쓴 작문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
다만, 차세대 주인공들이 직면한 현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마네현 중학생들이 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작문에서는 "한국에도 생각이 있고, 일본에도
생각이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보다 많이 찾아보며 공부하고 싶다"라고 언급한 작문이 많은
것에 반해, 한국 중학생들은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을 설득하기 위해 썼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 중학생들이 보낸 편지는 상호간 이해를 깊게 할 목적이 아닌, 한국정부의 견해를
일본 중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인 듯 보입니다. 이것으로는 한일 쌍방의 아이들에게 공연히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민족적 감정에 의한 대립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것은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
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본래 다케시마 문제와 같은 영토문제는 어른들이
마땅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끌어 넣어, 어른들의 정치
적 주장을 대변시키는 것은 그저 염치없는 요구에 불과합니다. 다케시마 문제는 영토문제이기 이
전에, 한일 두 나라간 국가로서의 자질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말합니
다만, 일본정부가 그와 같이 주장하게 된 것은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성립한
전후부터입니다. 그것도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을 요구하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마네현에 압력을 가해 왔던 것이 일본의 외무대
신과 외무성 고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2020년도부터 다케시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판 『중학학습
지도요령해설 사회편(中學學習指導要領社會編)』(「공민(公民)적 분야」의 <내용상 유의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및 북방영토와 관련된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는 점이나, 센카쿠 제도(尖閣諸島)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다룰 것"

일본의 다케시마 교육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중요시한데 반해서,
한국의 독도교육은 이와 별개도 '일본인을 설득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교육방침에 근거하여 한국 아이들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로 학교에서 장려하는 활동 중에는 일본 중학생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 학습지』가 새롭게 편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한국 중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검토하여, 한국의 독도교육에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열거한 10개 항목은 '독도는 한국령이다'고 하여, 한국 중학생들이 보내 온 모든 편지에 나타난 대표적인 논거입니다. 여기 10개 항목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다케시마 교육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서도 명확히 밝혀 두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일 중학생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소책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2. 한국 중학생들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여기고 있는 10가지 증거

(1)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나타내는 문헌으로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신라시대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한 지증왕 13년(512년)에 그 부속섬인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2)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입니다. 이것은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찬진(撰進, 임금께 글을 지어 바침))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산도와 무릉도(울릉도) 두 섬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활짝 갠 날에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산도는 현재 독도이기 때문에, 독도는 15세기 한국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1696년 일본에 건너온 안용복이 돛토리번 번주와 교섭해서,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인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겐로쿠 9년(1696년) 병자년 조선배가 해안도착 1권 각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4)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돛토리번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에 돛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돛토리번의 영토가 아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5) 일본의 문헌 중에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문헌과 지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667년에 그려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입니다. 그곳에는 일본 서북(西北) 경계를 오키섬(隱岐島)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헌도 독도는 한국령으로 한 것입니다.

(6)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지만, 그곳에는 조선(한국)과 마찬가지로 채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도와 경도가 없는 것은 조선의 영토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7) 1785년 하야시 시헤이는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를 그리면서, 다케시마에는 '조선의 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말하고, 그 오른쪽 위에 그린 것을 독도라고 했습니다.

다. 하야시 시헤이는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보고 있던 것입니다.

(8) 1877년 일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다음과 같이 지령(指令)을 내었습니다.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竹島外一島本邦關係無之)”. 이것은 시마네현이 제출한 ‘조사 자료’와 ‘이소다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태정관은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9) 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광무제)는 「칙령 제 41호」에서 ‘울릉 전도(全島)와 다케시마, 석도’를 울릉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석도는 음운(音韻) 관계상 현재의 독도입니다.

(10) 일본은 1905년 한국의 독도를 ‘무주지’로 하여, 시마네현 오키도사(島司)의 관할이라고 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조선침략에 의한 최초로 희생된 영토입니다.

이 외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열거한 10개 증거는 한국 중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 중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주장한 주요 사항입니다. 한국 중학생들은 이것을 『독도 바로 알기』나 『독도교과서』 등의 교재로 쓰여진 내용을 참고하면서, ‘독도는 한국령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중학생들이 증거로 삼아 사례로 든 문헌이나 고지도는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있는 ‘우산국’

우선 한국 중학생들에게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편지를 보낸 여러분은 실제로 『삼국사기』(「신라본기」)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확실히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신라 시대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기사(記事)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장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있습니다. 즉 『삼국유사』의 「지철노왕조(智哲老王條)」를 살펴보면, 그곳에는 우릉도(于陵島, 울릉도)의 일주(一周) 거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릉도는 일주가 ‘2 만 6 천 7 백 30 보’(약 42.768 킬로)였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현재 울릉도 일주도로와 거의 같은 길이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완성한 울릉도 일주도로의 총 연장선도 44.55 킬로입니다) 그러므로 울릉도 일주 거리는 우산국 일주 거리였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지증왕 13년조」)에도 다음과 같이 우산국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산국은 명주(溟州)의 동쪽 바다 위에 있는 섬나라로, 다른 이름은 울릉도. 사방 백리”

『삼국유사』에 있는 「지증왕 13년조」의 기술에 의하면, 우산국은 바다 위에 있는 섬나라였던 점, 혹은 다른 이름으로 울릉도라고 말하고, 그 한쪽 거리가 백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방 백리’라고 표기한 것은, 군(郡)이나 현(縣)의 행정구역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상투어로, 실제로 한쪽 거리가 백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욱이 한국에서 말하는 백리는 일본의 십리에 해당합니다.

울릉도의 세로 길이는 약 9.7킬로, 가로 길이는 10킬로이기 때문에, 우산국은 거의 울릉도와 같은 한 섬이라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지증왕 13 년조」 중 '신라귀복(新羅歸服, 신라에 귀순하여 항복함)' 부분만 사례로 들고 있을 뿐, 우산국이 바다 위에 있는 섬나라였다는 점이나 다른 이름으로 울릉도라 부르며, 넓이가 사방 백리 넓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삼국유사』에도 '지증왕'에 의한 우산국 정벌이 쓰여져 있습니다만, 이 또한 『독도 바로 알기』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삼국유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울릉도 일주가 '2 만 6 천 7 백 30 보'(약 42.768 킬로)였다는 것이나, 그 울릉도가 『삼국사기』에서는 우산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헌 기술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쓰여진 우산국은 그 일주가 '2 만 6 천 7 백 30 보'이고, 넓이가 '사방 백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산국은 울릉도를 말하며, 그곳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술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로 독도가 512 년부터 한국령이었으며, 울릉도의 부속섬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러한 계기는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안에 있습니다.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輿地考)」에는 "여지지(輿地志)에서 말하는 울릉·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 우산은 즉 왜(倭, 일본)의 소위 마쓰시마(松島)다"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우산도를 일본의 마쓰시마라고 하여, 마쓰시마는 우산국에 부속한 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독도나 마쓰시마에 관련한 기술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독도는 일본의 마쓰시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은 후세의 생긴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라고 말하게 된 것은, 1696년 6월에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일본의 돗토리번에 밀항하고, 귀환 후 조선에서 심문받을 때 "우산은 왜(倭)의 마쓰시마다"라고 공술한 것이 시작입니다. 안용복의 증언은 『숙종실록(肅宗實錄)』 외에 『표인령래등록(漂人領來騰錄)』, 『춘관지(春官志)』 등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용복의 증언을 옮겨 쓰게 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안용복이 "우산도는 마쓰시마다"라고 공술한 것만으로, 우산도가 마쓰시마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저본이 되었던 신경준(申景濬)의 『강계지(疆界誌)』(1756년)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에 관해서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다(于山鬱陵本一島)"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는 과정에서 '우산도는 마쓰시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된 것은 1770년입니다. 안용복이 "우산도는 마쓰시마다"라고 증언한 것은 1696년의 일입니다. 그것이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저본이 되었던 신경준의 『강계지』 단계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다"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 이르러서 "우산도는 마쓰시마다"라고 고쳐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 쓰여진 『동국문헌비고』(「여지고」)를 근거로, 우산도를 마쓰시마(독도)로 하고, 독도를 우산국의 부속섬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독도 관련해 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512년 신라시대에 한국령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2)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인다”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있는 우산도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다케시마는 울릉도에서 보이지만, 시마네현의 오키 제도에서는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 거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4.7킬로인 것에 반해, 오키 제도에서는 157.5킬로나 떨어져 있다고 하여, 독도까지의 거리를 근거로 독도는 한국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주장은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蔚珍縣條))의 기술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활짝 갠 날에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則可望見)”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활짝 갠 날에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라고 한, “보이다”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어느 섬을 보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산도를 독도로 해석하는 연구자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은 독도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는 독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지리적 조건을 근거로, 『세종실록』 「지리지」의 “보인다”를 해석한 것일 뿐, 우산도가 독도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대한 문헌비판입니다. 문헌비판이라 함은 그 문헌이 성립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걸쳐 완성되었는가, 그 배경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같은 지지(地志)가 편찬되었을 때에는 미리 편찬 방침(규식(規式, 규칙과 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식」에 대해서 『세종실록』 「지리지」의 저본이 되었던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섬은 육지로부터 떨어진 수로의 거리로 나타낸다(諸島陸地相去水路息數)”

이것은 도서(島嶼)를 관할하는 관청에서 섬까지 어느 정도 식수(息數, 거리)가 있는지, 기록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규식」(편집방침)에 따라 『세종실록』 「지리지」의 ‘울진현조’를 해석한다면, ‘보인다’는 울릉도를 관할하는 울진현에서 울릉도가 “보이는 거리에 있다”는 의미로 읽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산도를 독도로 해석한 한국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은 독도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는 독도다”라고 하는 설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보인다”를, 울릉도를 관할하는 울진현에서 “보인다”로 한 해석이 올바른 것은 같은 지(地誌)로,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의 ‘울진현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산도와 울릉도, 하나는 무릉(武陵)이라 말하고 또 하나는 우릉(羽陵)이라 말한다. 두 섬은 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세 봉우리가 높이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이내 섬 봉우리와 수목 그리고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다(于山島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峯岌嶭櫟空南峯稍卑. 風日清明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歷歷可見)”

‘울진현조’를 읽으면, “보이는” 전방에 있는 섬은 명확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울진현조’)의 “보이는” 전방에는, 그 섬의 ‘수목과 모래톱’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초에 불과한 독도에는 봉우리에 수목도 자라지 못하고, 섬 기슭에 모래톱 등은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방에 있는 섬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입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울진현조’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와 마찬가지로, 「규식」에 따라서 편찬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보인다”도 조선반도에 있는 울진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산도와 울릉도’라고 병기되어 있던 우산도는 어디에 가버린 것일까요?

그 우산도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울진현조’) 분주(分註)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산도와 울릉도는 본래 같은 섬’으로,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던 우산도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울릉도로 해석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증 동국여지승람』(‘울진현조’) 단계에서는, 우산도의 존재가 불확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중학생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우산도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 우산도가 울릉도와 같은 섬이면서 다른 이름으로 되기 이전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를 독도(다케시마)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울진현조’)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본래 같은 섬’으로 되었으며, 후세에 이르러 『여지도서(輿地圖書)』 (1756년경 성립)에는 우산도가 삭제되고 울릉도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지(地誌) 연구가 진전된 결과입니다.

나아가 19세기가 되어,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와서는 “보인다”의 해석도 보다 정확하게 바뀝니다. 김정호는 “보인다”를 “본현에서 맑은 날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면, 마치 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다(自本縣天晴而登高望見則如雲氣)”고 읽고, 울진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애매모호했던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를 독도로 보고, 그것을 근거로 “울릉도에서 보이는 것은 독도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헌비판도 하지 않고, 문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의한 잘못입니다. 문헌을 정확하게 읽지 않는다면, 그러한 역사적 이해 또한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3) 1696년 일본에 건너온 안용복(安龍福)이 돗토리번(鳥取藩) 번주(藩主)와 교섭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이 되었던 것은, 일본에 건너온 안용복의 활동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도 막부가 울릉도 도해(渡海)를 금지했던 것은, 1696년 1월 28일입니다. 안용복이 돗토리번 아카사키(赤崎)에 도착한 것은 1696년 6월의 일입니다. 안용복이 돗토리번에 오기 전, 에도 막부는 울릉도 도항(渡航)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이 2012년에 간행한 『이바나노쿠니(因幡国)에 조선인이 도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분고노카미(豊後守)님께 문의한 내용 및 회답, 기타 전말에 관한 각서』에서도, 안용복이 돗토리번 가로나다(賀露灘)에서 추방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안용복이 돗토리번 번주(藩主)와 교섭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령으로 했다는 안용복의 공술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도 막부에서는 돗토리번으로부터 안용복 일행의 착안(着岸) 보고를 받아, 안용복 일행을 추방하던가 아니면 쓰시마번(對馬藩)에 인도하도록 돗토리번에게 지시했습니다. 돗토리번은 막부의 지시에 따라 돗토리번의 해안에 위치한 가로나다로 안용복을 추방했습니다. 즉 안용복은 돗토리번의 번주와 면담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 등은 한 적이 없이 추방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용복은 조선의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일본에 간 것은 “울릉도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던 일본 어민을 쫓아 오키 제도에 표착(漂着)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 어민 15명은 처벌받았다”라고 공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에도 막부는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을 때, 돗토리번을 통하여 오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가(家, 가문)에 준 ‘도해 면허’를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오야·무라카와 가(家)는 ‘도해 면허’가 없으면 울릉도로 갈 수가 없었으며, 만약 울릉도로 건너 갈 때에는 돗토리번으로부터 ‘왕래 문서’를 발급받고, 바다표범 사냥을 위해 대포를 빌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사람들은 번의 영지(藩領)에서 다른 영지로 갈 경우, 반드시 ‘왕래 문서’를 소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래 문서’는 오늘날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돗토리번에서는 1696년 1월 28일 막부가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자, 오오야·무라카와 가(家)에게 ‘도해 면허’를 회수했습니다. 오오야·무라카와 가(家)의 배는 울릉도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 어민 15명은 처벌받았다”라는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안용복은 조선의 심문에서, 울릉도에서 일본 어민과 조우해 추적하여, 일본에 표착했다고

공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안용복의 증언에 대해, 조선정부 안에서도 수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정부의 고관이었던 유집일(兪集一)은 '표착'이라고 한다면, 통상 쓰시마번을 통해서 송환되는 만큼, 그런 이유로 표착한 안용복이 자력으로 귀환한 것은 이상하다고 의심했습니다. 안용복의 증언은 『숙종실록(肅宗實錄)』뿐만 아니라, 『표인령래등록』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비변사에서 심문을 받은 죄인 안용복이 증언한 '공술조서'의 일부입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그러한 안용복의 공술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의 '공술조서'의 일부가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안용복의 밀항사건의 경위를 실록인 『숙종실록』에 기록한 것 뿐입니다. 『숙종실록』의 기사(記事)가 사실이었는지 어떤지는 다음 왕조가 정사(正史)를 편찬할 때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안용복의 '공술'을 읽을 경우에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하는 전에, 다른 문헌에 의해 고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표인령래등록』에서는 안용복을 월경(越境, 국경 등을 넘음) 침범 죄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숙종실록』의 다른 부분에서는 안용복의 공술을 허위증언으로 보고, "안용복을 죽이지 않으면 말세의 간민(奸民, 간악한 백성)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며 걱정하는 조선 고관도 있었습니다. 『숙종실록』을 읽으면, 당시 조선에서는 안용복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용복의 증언을 사실로 보고, 안용복의 공덕으로 보는 자와, 허위 증언이라고 하여 안용복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안용복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령으로 한" 영웅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의견만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용복의 공술뿐만 아니라, 일본에 건너온 안용복이 일본에서 어떤 행적을 남기었는지, 일본측 문헌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측 문헌으로는 2005년에 발행된 『겐로쿠 9년(1696년) 병자년 조선배가 해안도착 1권 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가 있습니다. 이 기록의 표제에 '조선배가 해안도착(朝鮮舟着岸)'으로 되어 있듯이, 안용복은 일본에 표착한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용복이 탄 배에는 '관복(官服)', '선박 표지깃발(船印旗)' 등이 실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심문에 대해서, 안용복은 우연히 울릉도에서 일본 어민과 조우하여, 그들을 쫓아 다케시마까지 갔으며, 재차 추적하던 중, 태풍을 만나 일본에 표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용복은 관리인 것을 나타내는 호패(號牌, 신분증명서)까지 위조해 있었습니다. 이들 '관복', '선박 표지깃발', 위조된 '호패'는 일반 어민들이 소지하는 물건이 아닌,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물건입니다. 안용복에게는 처음부터 일본에 밀항해서, 관리를 사칭하며 돛토리번과 교섭할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오키섬 名主(里長, 이장)에 의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겐로쿠 9년(1696년) 병자년 조선배가 해안도착 1권 각서』에 의하면, 오키 제도에 착안한 안용복은 그 지방 이장에게 식량을 요구하는 등, 그의 행동에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안용복이 식량을 요구는, 당시 조선과 일본 간에는 상호 표류민을 구제하기로 되어 있어 식량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장이 봐도 안용복이 타고 온 배에는 표류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안용복은 그 때 이장에게 돛토

리번 번주에게 '부탁'이 있어 건너 왔다고 전했습니다만, 이에 이장은 그렇다면 식량을 준비해 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반대로 힐문했습니다. 그러자 안용복은 배 안으로 안내하며, 곤궁한 상황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작년에 흉작으로 악미(惡米, 질이 나쁜 쌀)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좋다면 가져가라"라고 말하며, 마을에서 쌀 등을 모아 안용복에게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안용복은, 돛토리번을 향해 배를 출항, '조울량도감세장신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臣安同知騎)', '조선국안동지승주(朝鮮國安同知乘舟)¹'라는 깃발을 세우고, 돛토리번의 아카사키에 도착합니다. 안용복이 공술한 내용 중, 역사적 사실에 가까웠던 것은 돛토리번의 아카사키에 착안하여, 돛토리번으로 이동할 때 일입니다. 돛토리번에서는 조선 관리를 사칭한 안용복 일행을 '말과 가마'에 태워, 돛토리번 고야마이케(湖山池)에 있는 아오시마(靑島)에 머물게 하고, 막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경위를 적어놓은 것이 『이바나노쿠니에 조선인이 도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분고노카미님께 문의한 내용 및 회답, 기타 전말에 관한 각서』입니다. 그곳에 쓰여져 있는 것이, 돛토리번에 의해 안용복 일행이 가로나다로부터 추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안용복 일행을 가로나다로부터 추방한 사실은, 막부 기록인 『통항일람(通航一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용복은 돛토리번의 번주와 교섭한 일도 없으며,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4) 에도(江戸) 막부는 1695년 12월, 돛토리번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물었다.

『독도 바로 알기』가 논거로 제시한 돛토리번의 「답변서(答辯書)」는, 에도 막부가 돛토리번에 게 질문한 7개 항목에 대해 답한 것입니다.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4일 돛토리번에게 "다케시마(竹嶋, 현재의 울릉도)는 언제부터 돛토리번에 부속된 것인가? 선조가 영지를 받기 이전인가? 그 이후인가?", "다케시마 외에 돛토리번에 부속된 섬은 있는가?"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돛토리번은 25일 "다케시마는 돛토리번의 부속섬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이와 같은 '돛토리번'의 답변을 근거로 하여,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돛토리번의 「답변서」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는 돛토리번의 부속섬'이 아니라고 한 부분 이외에도 주의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서」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마쓰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돛토리번(鳥取藩)의 영지(領地)를 받았을 때, 봉서(奉書)를 통해 도해가 허락되었다고 들었다(松平新太郎領國節, 御奉書を以被 仰付候旨承候)"

¹ '조울량도감세장신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臣安同知騎)', '조선국안동지승주(朝鮮國安同知乘舟)는 안용복의 호칭을 나타내는 말이며, 이 이외에도 '안비장(安裨將)' 등이 있다.

이 부분은 돗토리번과 울릉도 도해와의 관계를 아는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돗토리번의 영지를 받았을 때'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은, 마쓰다이라 신타로(이케다 미쓰마사(池田光政)가 히메지(姫路)에서 이나바 호키국(因幡伯耆国, 돗토리번)에 입봉(入封, 토지를 부여 받아 그 영지로 들어가는 것을 말함)할 때입니다. 이케다 미쓰마사가 히메지에서 돗토리로 영지를 옮기게 된 것은, 전년 1617년의 일입니다. 이것은 이케다 미쓰마사의 영지가 이미 1617년 단계에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울릉도는 처음부터 돗토리번의 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돗토리번 요나고(米子)의 오오야 무라카와 가(家)가 '봉서를 통해 도해가 허락되었다고 들었다'라고 하여, 울릉도 도해를 허락받았던 것은 이케다 미쓰마사가 돗토리번으로 입봉할 때입니다. 오오야 무라카와 가(家)는 그 감사(監使)인 아베 시로고로마사유키(阿倍四郎五郎正之)에게 알선을 의뢰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를 허가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 돗토리 번주는 이케다 미쓰마사의 분가(分家) 출신인 이케다 쓰나키요(池田綱清)였습니다. 그래서 돗토리번으로서는 막부로부터 '영지인가'라고 질문받았다면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돗토리번의 영지를 받았을 때, (요나고의 오오야 무라카와 가(家)가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봉서에 의해 허락받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답하며, "요나고의 오오야 무라카와 가(家)가 도해하여 어업하기 때문에 허락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답변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쓰다이라 신타로 이후, 돗토리번의 영지는 정해져 있으며, 다케시마(울릉도)나 마쓰시마는 처음부터 번의 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에도 막부에서는 돗토리번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돗토리번 이 어째서 이와 같은 「답변서」를 쓰게 되었으며, 에도 막부는 어째서 돗토리번에게 「질문서」를 보내었는지 라는 점입니다.

에도 막부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 전에 쓰시마번으로부터 "울릉도(다케시마)에는 조선인도 건너오게 되니, 일본측과 분쟁이 빈번하다. 더불어 금지된 교역 또한 성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렵겠지만 "다케시마를 포기하고 조선과 함께 도해를 금지하면 어떤가?"라는 타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시마에서는 오오야 가(家)의 선장 일행이 울릉도에서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데리고 온 이후, 막부의 명에 따라 조선정부와 울릉도 귀속을 둘러싼 교섭에 임했습니다. 그런 쓰시마번이 울릉도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에도 막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막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 돗토리번에게 "울릉도는 돗토리번의 영지인가? 확인"을 위해 질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일의 발단은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번이, 돗토리번의 오오야 가(家)의 선장 일행이 데리고 온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측으로 송환하고, 조선 어민들이 울릉도에 오지 못하도록 조선정부에 요구한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섭을 진행하던 사이, 다케시마가 조선의 울릉도인 것이 판명되어, 쓰시마번으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쓰시마번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어,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령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섭이 한창일 때, 쓰시마 번주가 사망하는 일

도 생겨, 쓰시마번에서는 교섭 중단을 에도 막부에 출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부는 쓰시마번의 요청을 받아들여, 확인 차 돗토리번에 보냈던 것이 「질문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답한 것이 돗토리번의 「답변서」였습니다. 막부는 돗토리번의 답변서를 받아, 다음 해 1월 28일에 도해 금지를 돗토리번에 전한 것입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돗토리번의 「답변서」를 일본이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했다는 문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답변서」 안의 “돗토리번의 영지가 아니다”라고 한 부분만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돗토리번의 「답변서」가 쓰여지게 되었던 것은, 쓰시마번이 막부에게 울릉도가 조선령인 것을 전하며, 조선과의 울릉도 교섭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부는 확인 차 돗토리번에게 ‘7개 조(條) 질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답한 것이 돗토리번의 「답변서」입니다. 1696년 1월 28일의 ‘도해 금지’는 이렇게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에도 막부에 의한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는 돗토리번에 밀항해 온 안용복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5)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인정한 문헌, 1667년에 쓰여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사이토 호센(齊藤豊仙)의 『은주시청합기』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령으로 한 일본 문헌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주시청합기』는 독도관련 기록이 있는 일본의 최초의 책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서북(西北) 경계를 오키섬으로 한다”라고 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독도를 마쓰시마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은주시청합기』의 「국대기(國代記)」에 “일본의 서북 땅, 이 주(此州)를 경계로 한다(日本之乾地, 以此州為限矣)”라는 한 문장이 있는 이유로, 여기 이 주(此州)를 은주(隱州, 隱岐島(오키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주시청합기』는 오키섬을 일본 서북 경계로 하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인 사이토 호센은 ‘이 주’를 일본의 서북 경계로 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북(西北) 사이, 이틀하고 하룻밤 가면 마쓰시마가 있다. 또한 하루 거리에 다케시마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섬은 무인도로,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마치 운슈(出雲)에서 오키섬을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 땅은, 이 주(此州)를 경계로 한다”

여기에서 사이토 호센이 '이 주'로 한 '주'에는 나라의 의미뿐만 아니라, 섬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문에서는 '주(州)'를 '섬(島)'의 의미로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가미요 권(神代卷)」에서도 오키섬을 '億伎洲'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한 주(洲)는 주(州)와 똑같이 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대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이토 호센이 '이 주'를 일본의 서북 경계로 한 근거입니다. 사이토 호센이 "일본의 서북 땅, 이 주를 경계로 한다"는 조건으로 '고려(조선)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서북 사이는' 이하 문장에는 오키섬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이 주'를 오키섬이라고 했을까요?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를 '일본의 서북 땅'의 경계로 한 조건이 되었던 "고려(조선)이 보이는" 섬에 대해서,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다케시마), 오키섬 중에 확인해 보면, 조선반도가 보이는 가능성이 있는 섬은 울릉도뿐입니다.

사이토 호센이 『은주시청합기』의 「국대기」에서, "이 주를 경계로 한다"고 한 조건은, 조선반도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에 합치하는 것은 울릉도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키섬으로 해 버린 것이, 조금 이상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이토 호센이 울릉도를 "일본의 서북 땅, 이 주를 경계로 한다"라고 하여,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주시청합기』의 본문을 읽어 보면 명확합니다만, 사이토 호센은 돗토리번 요나고의 오오야 무라카와 가(家)가 막부로부터 '도해 허가'를 얻어 이소다케시마(磯竹島, 울릉도)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은주시청합기』에 있는 「오치군(穩地郡)」(남방촌조(南方村條)의 이소다케시마로 건너 온 자)와 「치부군 타쿠히산엔기(知夫郡燒火山緣起)」(관(官)으로부터 붉은 도장(朱印)²을 받고, 큰 배로 이소다케시마에 가다(自官賜朱印 致大船於磯竹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 호센이 울릉도를 '일본 서북 땅'으로 한 것은,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토 호센이 오키 제도를 "일본의 서북 땅, 이 주를 경계로 한다"라고 하여,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은주시청합기』(「국대기」)에 있는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마치 운슈(出雲)에서 오키섬을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가 나중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에도 인용되어,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논거로 사용되는 것에서도 분명합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 '이 주'를 오키 제도로 해석한 것은 「국대기」의 문장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토 호센은 어떠한 목적으로 「국대기」를 써서, "일본의 서북 땅, 이 주(此州)를 경계

² 여기서 붉은 도장(朱印, 혹은 朱印船)이란, 에도 막부가 배들이 외국에 도항할 경우 허가한 것을 말한다.

로 한다”고 기술했던 것일까요?

『은주시청합기』의 권두 부분인 「국대기」에는 은주(오키국(隱岐國))의 위치를 지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오키국의 역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사이토 호센은 오키국의 사이고(西郷)를 기점으로 하여, 동서남북을 방사(放射) 형태로 연장하여, 도달한 일본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이토 호센으로서는 주변 지역과의 위치 관계를 분명히 해서, 오키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오키국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国府)는 시키치군(周吉郡) 남쪽 연안의 사이고 도요자키(西郷豊崎)다.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운슈국(出雲國) 미호세키(美穂關)에 이르기까지 35리가 되며, 남동쪽으로 하쿠슈(伯州) 아카사키우라(赤崎浦)에 이르기까지 40리다. 남서쪽으로 세키슈(石州)의 유노쓰(温泉津)에 이르기까지는 58리이며, 북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땅은 없다. 북서쪽으로 배로 이틀 낮과 하루 밤 거리를 가면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가 있다. 또한 하루 낮 거리에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일반적으로 이소다케시마라고 한다. 대나무·어류·바다표범이 많다)가 있다. 이 두 섬은 무인도로, 이 두 섬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이 마치 운슈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 까닭에 일본의 서북 땅은 이 주를 경계로 한다.

이것이 오키섬과 주변 지역의 지리적인 관계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서북 땅은 이 주를 경계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서북 땅으로 하여 “이 주를 경계로 한다”고 하는 조건은 “고려(조선)를 볼 수 있는 것은 운슈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처럼, 조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키섬을 기점으로 조선이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이 “북서쪽으로 배로 이틀하고 하룻밤 거리를 가면 마쓰시마가 있고, 또한 하루 거리에 다케시마가 있다”고 한 다케시마(울릉도)입니다. 사이토 호센에 의한 「국대기」의 지리적 설명이 남쪽에서 시작하여, “고려(조선)가 운슈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본의 서북 땅은 이 주를 경계로 한다”라는 한 문장으로 기술을 끝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이 주’를 서북 ‘경계’로 하고 있는 기점은, 오키섬의 사이고 도요자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은 기점인 오키섬을 서북 ‘경계’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독도 바로 알기』와 같이, 오키섬을 ‘이 주’로 한다면, 오키섬을 ‘서북 땅’으로 하는 기점은 오키섬 이외의 땅에서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이토 호센이 기점으로 했던 것은 오키섬의 사이고 도요자키입니다. 『은주시청합기』(「국대기」)의 ‘이 주’를 은주(오키섬)로 해석한 『독도 바로 알기』는 틀린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주시청합기』(「국대기」)의 “일본의 서북 땅, 이 주를 경계로 한다”의 ‘이 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울릉도라고 읽었던 사람이 나가쿠보 세키스이입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 여지도정전도』에서는, 『은주시청합기』(「국대기」)의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마치 운슈(出雲)에

서 오키섬을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見高麗如自雲州望隱岐)“에 의거하여, 울릉도 지도 부근에 “고려(조선)을 보는 것은 마치 운슈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같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고 부기하여,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어찌하여 사이토 호센의 『은주시청합기』(「국대기」)에서 “고려(조선)가 운슈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를 인용했던 것일까요?

다음으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가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보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6)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는 조선 영토로 하고 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울릉도를 한국령으로 한 일본의 고지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고등학생용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8~19세기 일본의 대표적 지도인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는 당시 일본의 영토인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는 채색되어 있는 일본 영토와는 달리, 조선 본토와 함께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채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두 개의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에 채색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중요한 점은 채색의 유무나 채색의 다름이 아닙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작성할 때에, 사이토 호센의 『은주시청합기』를 참고하여 작도(作圖)했던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은주시청합기』에 의거하여, “고려(조선)을 보는 것은 마치 운슈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같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의 한 문장을 다케시마(울릉도) 지도 부근에 표기했던 것은, 나가쿠보 세키스이도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미토번(水戸藩)이 편찬한 『대일본사(大日本史)』의 「지리지(地理志)」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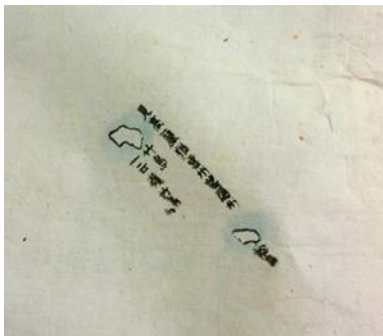
미토번 번사(藩士, 제후에 속하는 무사)였던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대일본사』 편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대일본사』의 편찬사업으로,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담당했던 것이 「지리지」입니다. 「지리지」의 「오키국조(條)」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견해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입니다.

“이미 다케시마라고 말하거나 마쓰시마라고 말한다. 일본 영토인 것은 지자(智者)를 기다리지 않아도 알려져 있다”

『대일본사』의 「지리지」 편찬에 종사하며,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를 작성한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사이토 호센의 『은주시청합기』(「국대기」)에 기초하여,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두 섬을 ‘우리(일본) 판도(版圖, 영토)’로 했습니다. 즉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의 다케시마(울릉도) 지도 부근에 “고려(조선)을 보는 것은 마치 운슈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같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 【사진②】 라고 부기하였던 것은, 『은주시청합기』에서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마치 운슈(出雲)에서 오키섬을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見高麗如自雲州望隱岐)”를 인용해서, 다케시마(울릉도)가 일본령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케시마(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본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에서, 『은주시청합기』의 “見高麗如自雲州望隱岐”를 “見高麗猶雲州望隱州”로 인용했던 것은 이 주(州)가 울릉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이토 호센이 다케시마(울릉도)를 “일본의 서북 땅은, 이 주를 경계로 한다”라고 하고,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에 그렸던 다케시마에 “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고 부기했던 것은, 모두가 다케시마(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보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진②】 나가쿠보 세키스이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 부분

『독도 바로 알기』와 같이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의 다케시마에 채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일본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7) 1785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에 그려진 ‘조선의 땅’

한일 간 다케시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거의 매번 한국 매스컴을 들썩이는 것이 하야시 시헤

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1785년)입니다.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사진③】에 그려진 다케시마(竹嶋, 울릉도)에, “조선의 것이다”고 한 부기가 있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 때문에 울릉도가 근세에는 다케시마라고 호칭되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연구자 중에는, 그 다케시마(竹嶋)를 현재의 다케시마(竹島)라고 착각하여, 하야시 시헤이는 “다케시마(竹島)를 조선령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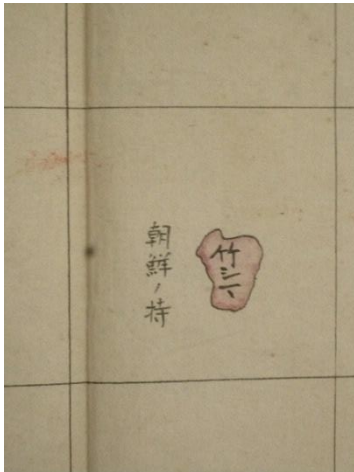


【사진③】 하야시 시헤이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

그것이 다케시마(竹嶋)가 울릉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울릉도의 오른쪽 위에 그려진 작은 섬(小島)을 현재의 다케시마(竹島)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를 파악하고 이해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케시마 지도 부근에는 “이 섬에서 은주(오키섬)이 보이고/ 또한 조선이 보인다”라고 한 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의 부기가, 사이토 호센이 『은주 시정합기』에 기록했던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마치 운슈(出雲)에서 오키섬을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見高麗如自雲州望隱岐)” 문언을 참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야시 시헤이는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야시 시헤이는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의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야시 시헤이는 어찌하여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의 것이다”라고 하고, 그 다케시마의 오른쪽 위에 작은 섬(소도)를 그렸던 것일까요? 이것은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가 어떻게 하여 작도(作圖)되었고, 울릉도의 오른쪽 위에 작은 섬이 그려진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야시 시헤이는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의 작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새로이 일본을 중심으로 조선, 류큐(琉球, 현 오키나와), 에조 및 오가사와라(小笠原) 섬 등의 지도를” 연결했다고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시헤이가 ‘지금 새로이 일본을 중심으로’라는 것은,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야시 시헤이는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한 가운데 두고, 그곳에 『삼국통람도설』에 수록된 『조선국지도(朝鮮國之圖)』(「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 『류큐국지도(琉球國之圖)』, 『에조국지도(蝦夷國之圖)』, 『무인도지도(無人島之圖)』 등의 지도를 서로 연결하여,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를 작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 인용되었던 『은주시정합기』의 “見高麗猶雲州望隱州”는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서도 “이 섬에서 은주(오키섬)이 보이고/ 또한 조선이 보인다”라고 하여, 답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야시 시헤이는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를 작도할 때,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와는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일본 영토'라고 했던 다케시마(울릉도)에 "조선의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의 것이다"라고 한 사고방식은,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1785년)의 저본이 된 『일본원근외국지도(日本遠近外國之圖)』(1782년) 단계에서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원근외국지도』【사진④】에서는 '다케시마(竹シマ)'라고 표기된 다케시마(울릉도)에, '조선의 것' 부기가 붙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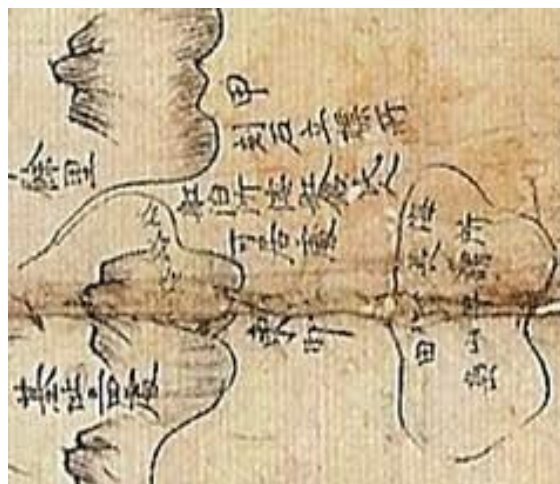


【사진④】 하야시 시헤이 『일본원근외국지도』 부분

이것은 하야시 시헤이가 『일본원근외국지도』를 작도하기 이전부터 나가사키(長崎)를 찾아간 것과 관계 있습니다. 하야시 시헤이는 나가사키 지역에서 각종 지도를 수집하였는데, 그 중에는 쓰시마번의 통사(通詞, 통역을 맡았던 관리)가 전한 『조선국지도』(「조선팔도지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야시 시헤이는 그 과정에서 다케시마(울릉도)가 조선령으로 된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일본원근외국지도』에서는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의 것'이라고 하고,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서는 "조선의 것이다"고 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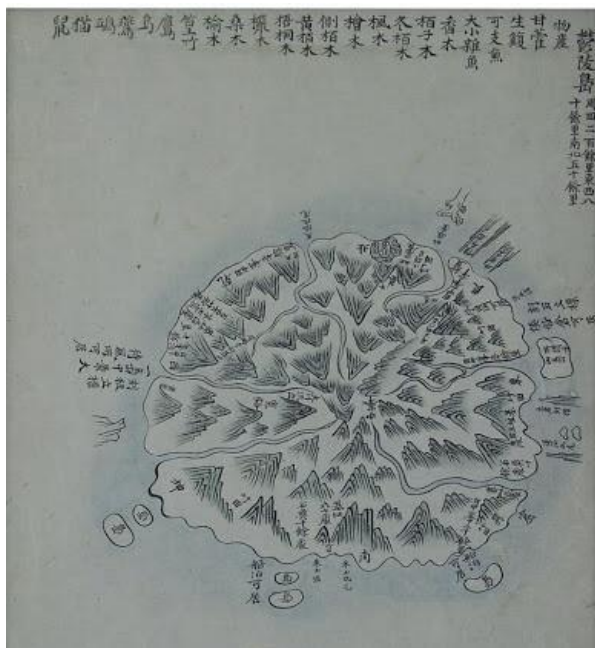
【사진⑤】 박석창의 『울릉도도형』(1711년)



『울릉도도형』(해장죽전(海長竹田)/소위 우산도(所謂于山島) 부분)

하지만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에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에 그려져 있던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가 없습니다.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은 『일본원근외국지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후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에 이르러서는 새롭게 “이 섬에서 은주(오키섬)이 보이고/ 또한 조선이 보인다”가 덧붙여졌고, 더욱이 하야시 시헤이가 ‘키요(崎陽, 현 나가사키) 사람 나라바야시(檜林)가 소장한 진귀한 지도(珍圖)’를 입수한 것으로 또 한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케시마(울릉도)의 오른쪽 위에 작은 섬이 하나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조선에서는 울릉도의 지리적 인식이 현재에 가까운 형태로 자리잡게 됩니다. 수토사(搜討使) 박석창(朴錫昌)이 그리도록 명한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1711년)이 등장하며, 울릉도 동쪽 약 2킬로에 있는 죽서(竹嶼)가 ‘소위 우산도(所謂于山島)’【사진⑤】라고 표기되고, 그것이 후세 울릉도 지도【사진⑥】에 소위 우산도로 답습되었습니다.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확립된 울릉도 모습(像)은, 정상기(鄭尙驥)의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사진⑦】에도 채용되어, 울릉도 오른쪽에 작은 우산도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진⑥】 『해동지도(海東地圖)』 「울릉도」

그러나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에 울릉도가 그려지고, 그 오른쪽 위에 작은 섬인 우산도를 독도라고 해석하여, 일본 고지도에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독도 바로 알기』 등이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 그려진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정상기가 『동국대지도』에 그렸던 우산도가,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의 죽서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측 독도연구에서는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을 언급해 오지 못했습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 배운 아이들도,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 그려진 우산도(죽서)를 독도라고 믿고, 일본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진⑦】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와 (확대부분)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의 우산도를 독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에 그려진 울릉도 오른쪽 위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 힌트가 되는 것이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 속에 하야시 시헤이가 '키요 사람 나라바야시가 소장한 진귀한 지도'라고 말한 '진귀한 지도(珍圖)'의 존재입니다. 이 '진귀한 지도'는, 박석창의 『울릉도도형』 계통의 「울릉도지도(鬱陵島地圖)」【사진⑧】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야시 시헤이가 『일본원근외국지도』에서 사용했던 지도에 대해서, 조선의 "전도(全圖)는 쓰시마(對馬)번의 역관이 전한 것이다"고 하여, 쓰시마번의 역관이 전한 전도를 기초로 해 조선반도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원근외국지도』에는 두 개의 울릉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⑧】예를들면『팔도여지도(八道輿地圖)』 「울릉도 그림(鬱陵島圖)」

하나는 『삼국통람도설』의 「조선국지도」에서 유래한 울릉도이고, 또 하나가 '다케시마(竹シマ)'라고 그려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의 다케시마(울릉도)입니다. 그것이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서는 새롭게 '키요 사람 나라바야시가 소장한 진귀한 지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원근외국지도』(1782년)로부터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1785년)가 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울릉도의 오른쪽 위에 작은 섬이 하나 그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키요 사람 나라바야시가 소장한 진귀한 지도'와 관련이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울릉도의 오른쪽에 작은 섬이 그려져 있는 것은, 박석창의 『울릉도도형』 계통의 울릉도지도입니다.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서 울릉도의 오른쪽 위에 작은 섬이 그려졌던 것은, '키요 사람 나라바야시가 소장한 진귀한 지도'가 그 박석창의 『울릉도도형』 계통의 울릉도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의 울릉도 오른쪽(혹은 오른쪽 위)에 그려졌던 작은 섬이 독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중앙에 두고 작도된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와 『일본원근외국지도』(1782년)에서는 처음부터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사이토 호선의 『은주시청합기』(「국대기」) 기술에 따라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그렸습니다. 『은주시청합기』(「국대기」)에 “서북(西北) 사이, 이틀하고 하룻밤 가면 마쓰시마가 있다. 또한 하루 거리에 다케시마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그 기술에 따라 오키섬의 서북 방향에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간격을 띄워 그리고 있습니다. 【사진②】

그러나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는 마쓰시마(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야시 시헤이는 울릉도 부근에 “조선의 것이다”라고 부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케시마를 “조선의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보다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 그려졌던 울릉도의 오른쪽 위에 있는 작은 섬은, 박석창이 『울릉도도형』에 그렸던 '소위 우산도'가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 “조선의 것이다”라고 한 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 일본의 고지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말하며, 그 오른쪽 위에 그려졌던 작은 섬은,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소위 우산도'로 된 죽서였습니다. 하야시 시헤이가 “조선의 것이다”라고 한 것은 『울릉도도형』 중에 있는 울릉도였던 것입니다.

- 8) 1877년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竹島外一島本邦關係無之)”와 『이소다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1877년 '품의를 받은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알아 들 것'이라고 한 태정관(太政官) 지령을 근거로, 일본정부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했다”고 말하

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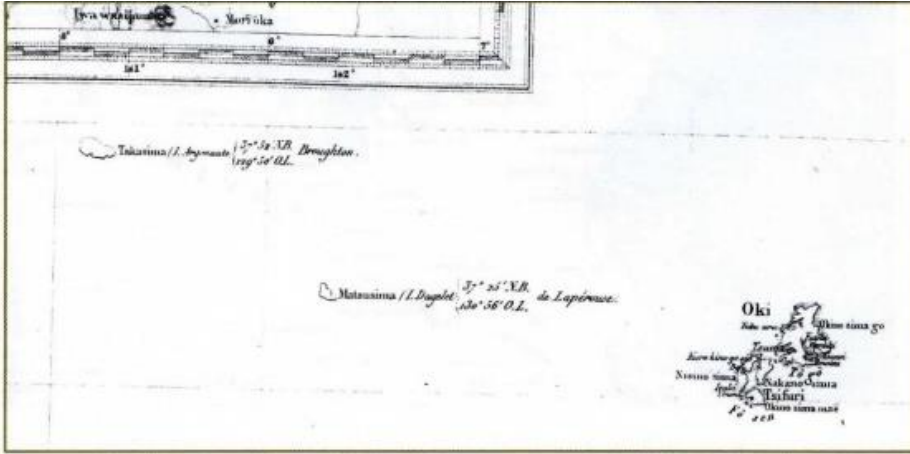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에서 다케시마 외 일도(竹島外一島)의 일도를 독도라고 본 증거는, 시마네현이 제출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와 『이소다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뿐입니다. 확실히 이 두 개를 문헌비판도 하지 않고 해석한다면,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竹島外一島本邦關係無之)"의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이소다케시마 약도』에 그려진 이소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태정관이 '다케시마 외 일도'라고 인신했던 도서(島嶼)와 『이소다케시마 약도』에 그려진 도서가 같은 섬인가, 문헌비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케시마가 새로운 섬으로 시마네현에 편입될 때, 그 새로운 섬을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키 도서(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통칭하는 것도 사실은 마쓰시마를 말하는 것으로, 해도(海圖)를 보아도 분명하고 명백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다케시마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이 새로운 섬을 종래의 오칭(誤稱)인 명칭을 전용하여, 다케시마라는 통칭을 새로운 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오키 도서 히가시 분스케는, 새로운 섬에는 본래의 마쓰시마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지만, 이미 해도 등에는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표기되어 있으니, 새로이 편입되는 섬에도 울릉도의 호칭이었던 다케시마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키 도서 히가시 분스케에 의하면, 본래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통칭이었지만, 해도 등에서는 울릉도가 마쓰시마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가시 분스케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통칭하는 것도 사실은 마쓰시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프란츠 시볼트(Franz Siebold, 독일사람으로 일본 연구가)가 1840년에 작성한 『일본전도(日本全圖)』에서는, 아르고노트섬을 다케시마로 보고, 다즐레섬을 마쓰시마로 본 것에서, 그 이후의 해도나 지도에서는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체재했던 프란츠 시볼트는 귀국할 즈음하여, 일본 지도 등을 가져갔습니다. 프란츠 시볼트는 이것을 기초로 『일본전도』【사진㉔】를 작성했지만, 마쓰시마의 위치를 '북위 37도 25분 · 동경 130도 56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㉑】 프란츠 시볼트의 『일본전도』(부분), 1840년 마쓰시마의 위도(북위 37도 25분)과 경도(동경 130도 56분)는 울릉도의 경위와 경도

이러한 경위도에 해당하는 것은 현재의 울릉도입니다. 마쓰시마는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는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프란츠 시볼트의 『일본전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아르고노트섬의 위도와 경도는, '북위 37도 52분 · 동경 129도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장소에는 도서(島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프란츠 시볼트는 잘못으로 울릉도에 마쓰시마라고 표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다시 말해 태정관이 서양에서 전래받은 지도나 해도를 기준으로 '다케시마 외 일도'의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소다케시마 약도』에 그려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는 당연히 같은 섬이 아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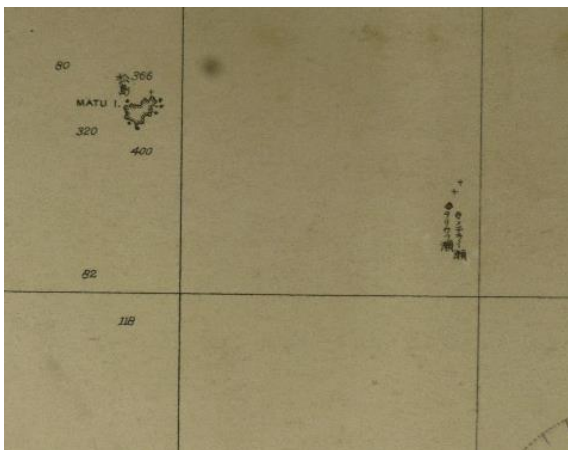
【사진㉒】 시마네현이 제출한 『이소다케시마 약도』

프란츠 시볼트가 다케시마로 봤던 아르고노트섬은, 1863년 영국해군의 해도에서는 파선(破線)으로 그려지고, 'PD'라고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PD' (Position Doubtful)는 소재 불명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란츠 시볼트의 『일본전도』에서 시작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시마네현이 제출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와 『이소다케시마 약도』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프란츠

시볼트가 다케시마로 생각했던 아르고노트섬은, 태정관 지령이 하달되었던 전 해인 1876년 판 영국해군 해도에서는 삭제되었으며, 그 대신 마쓰시마(울릉도)와 리앙쿠르암(Liancourt, 현재의 다케시마)이 그려져 있습니다.

태정관 지령에서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했을 때는, 아르고노트섬(다케시마)이 해도나 지도로부터 삭제되는 과도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실은 태정관 지령에서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한 ‘다케시마 외 일도’의 외 일도를 시마네현이 제출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와 『이소다케시마 약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태정관을 ‘메이지 유신 초기의 최고행정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태정관은 해도 및 지도에 그려진 마쓰시마가 울릉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태정관 지령’이 하달된 전 해(1876년) 3월, 일본 해군성 수로국제도과장(水路局製圖課長) 직무대리인 오지리 히데카쓰(大後秀勝)가 제작한 『대일본해육전도와 연접 조선전국 및 사할린(大日本海陸全圖聯接朝鮮全國並樺太)』(이하, 『대일본해육전도(大日本海陸全圖)』)【사진⑩】이 간행되었습니다.



【사진⑩】 오지리 히데카쓰의 제작한 『대일본해육전도와 연접 조선전국 및 사할린』(부분), 1876년 마쓰시마는 울릉도, 다케시마에는 ‘올리부차’, ‘메넬라이’라고 표기

그곳에는 마쓰시마(울릉도)와 현재의 다케시마가 러시아 해도에 따라 ‘올리부차’, ‘메넬라이’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의 해도 등에는, 다케시마(독도)는 ‘올리부차’, ‘메넬라이’ 또는 ‘리앙쿠르암’ 등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일본해육전도』가 완성된 것은 1875년, 간행되었던 것은 태정관이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알아 둘 것’이라고 지령한 전 해였습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그와 같은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 내무성이 “독도관계 자료를 5개월에 걸쳐서 조사·검토한 후, 두 개의 섬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태정관 지령이 내려지기 1년 전, 이미 『대일본해육전도』가 간행된 만큼 확인하려고 했다면 ‘다케시마 외 일도’의 외 일도(마쓰시마)가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니라는 것

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태정관에서는 시마네현이 제출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와 『이소다케시마 약도』를 검토하고,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지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쓰시마가 울릉도였던 사실은 이내 밝혀집니다. 그것은 1880년 9월 13일 아마기함(天城艦)이 마쓰시마를 측량하고, 마쓰시마가 울릉도이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마쓰시마가 울릉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881년 8월 정부의 명령을 받은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가 『다케시마 고증(竹島考證)』(1881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외 일도’의 마쓰시마는 울릉도로 하고, 다케시마는 울릉도 동쪽 2킬로에 있는 죽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877년 태정관 지령에는 당시 ‘울리부차’, ‘메넬라이’ 또는 ‘리앙쿠르암’ 등으로 표기된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키 도사 히가시 분스케입니다. 히가시 분스케는 새로운 섬(다케시마)을 일본령으로 편입할 때에, 그 섬 이름 명명에 대해서 질문받자,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통칭하는 것도 사실은 마쓰시마를 말하는 것으로, 해도(海圖)를 보아도 분명하고 명백하다 하겠다”고 말하며, “종래의 오칭(誤稱)인 명칭을 전용하여, 다케시마라는 통칭을 새로운 섬의 이름으로” 붙여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으로 편입되기 이전의 마쓰시마는 울릉도였습니다. 이 사실은 태정관 지령에서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한 ‘외 일도’인 마쓰시마는 현재의 다케시마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독도 바로 알기』(「러일전쟁과 일본의 독도침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학습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877년에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 보자.

여기 「러일전쟁과 일본의 독도침탈」 단원에서 학습자들에게 전하려고 한 것은, 일본은 태정관 지령으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했지만, 러일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령으로 해 버렸다라는 역사인식입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1945년 10월 28일 다케시마 문제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려고 한 일본정부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보인 ‘역사인식’과 같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도 <한일관계에 관련하여 국민께 전하는 글> 중에,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 그것은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측이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독도가 러일전쟁 이전에 한국령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사인식’의 근거가 된 것이 다음에 언급할 「칙령 제 41호」입니다.

9) 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와 「칙령 제 41호(勅令第四十一号)」의 석도(石島)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독도(다케시마)가 한국령이었다는 근거로 든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의 내용과 의미> 중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정부는 칙령 제 41호를 공포하며,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고치고, 도감(島監, 울릉도를 맡아 다스리던 벼슬)을 군수로 승격했다. 대한제국의 칙령 제 41호를 1900년 10월 27일부 관보(제 1716호)를 통해서 개제했다. 이것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제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으면, 「칙령 제 41호」에서는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고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령으로 한 것을, 대한제국은 관보(제 1716호)에 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칙령 제 41호」에는 울릉군의 관할구역을 '울릉도 전도 및 다케시마, 석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독도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도 바로 알기』는 “독도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에서, 「칙령 제 41호」 안에 있는 석도가 독도였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서는 독도를 석도라고 부르고 있다. 석도를 국어로 말하면, 돌(石)의 섬으로 돌로 만들어진 섬이라는 것이다. 19세기말부터 전라도 지방 어민들은 석(石)을 독(獮)으로 하여, 독섬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독도 바로 알기』가 “칙령 제 41호에서는 독도를 석도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했던 것은 「칙령 제 41호」에는 독도라고 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칙령 제 41호」에 기록되어 있는 울릉군 관할구역은 '울릉도 전도(全島) 및 다케시마, 석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도를 독도라고 한 설명으로 '석도'는 전라도 어민들의 발음 '독도'에 가깝다는 구실을 붙여, '울릉도 전도 및 다케시마, 석도'의 석도는 독도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한국에서 독도라고 표기하게 된 것은 1904년 9월 일본 군함 니이다카(新高)가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쓰고, 일본 어민은 리양코섬이라 부른다”라고 보고했던 것이 처음 사례입니다. 1904년 이후에 등장한 '독도'가 1900년 10월 「칙령 제 41호」에 게재되었던 석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울릉도 도민이 어업에 종사한 것은 울릉도 인근에서 오징어 어장이 발견된 1903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 조선반도로부터 울릉도로 건너 간 도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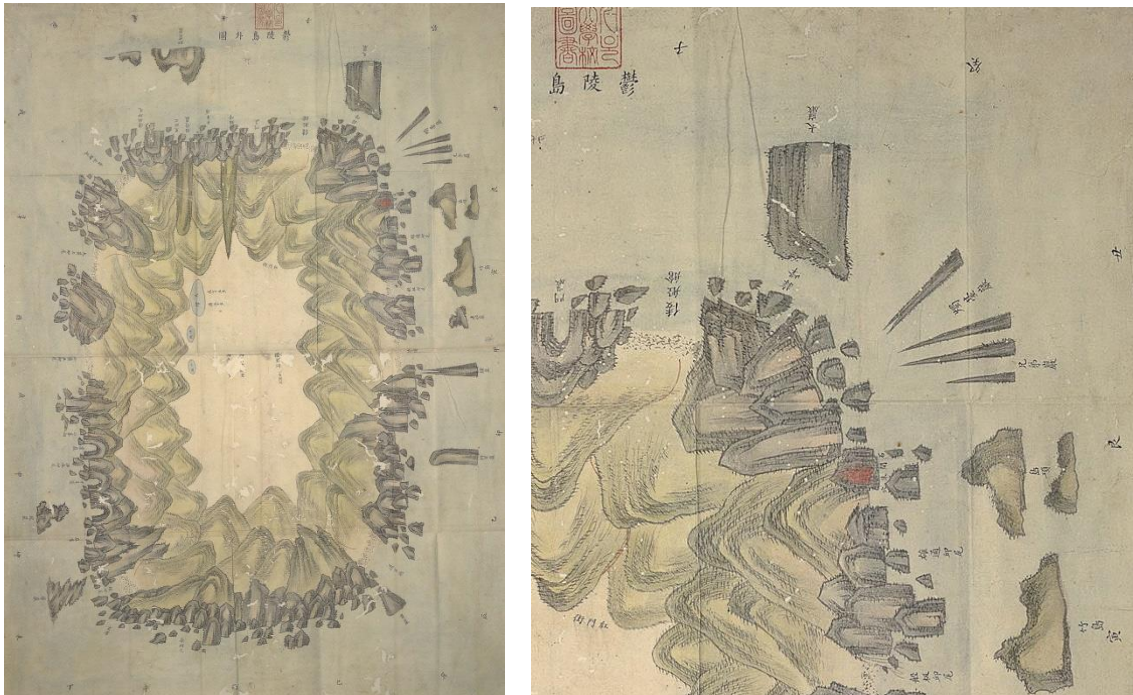
울릉도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에 자주 왕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칙령 제 41호」의 석도를

독도로 보는 것은 독단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칙령 제 41호」에서 울릉군 관할구역이 '울릉도 전도 및 다케시마, 석도'라고 정해진 이전에도, 대한제국에는 조선시대로부터 계승된 전통적인 울릉도 강역(疆域,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어학적 설명만으로 석도를 독도로 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울릉도 강역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와 쓰시마번 간에 다투었던 울릉도 영유권 문제부터, 울릉도 모습을 그린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이 수없이 작도되었습니다. 그 『울릉도도형』 중에서 후세에 까지 영향을 준 것이 수토사 박석창이 작도시킨 『울릉도도형』 (1711년)입니다.

박석창은 『울릉도도형』 중에 울릉도의 강역을 '종(縱)으로 80리, 횡(橫)으로 50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울릉도를 하나의 섬으로 하여, 『울릉도도형』에는 울릉도에서 남동(南東)으로 84.7킬로나 떨어진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울릉도 동쪽 약 2킬로에 있는 죽서에 '소위 우산도'라고 부기된 이후, 울릉도 지도에는 죽서 또는 우산도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진⑥】, 【사진⑦】, 【사진⑧】 참조

이러한 울릉도를 하나의 섬으로 여기는 지리적 인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국 시대나, 1882년 고종으로부터 울릉도 답사를 하명받은 검찰사 이규원(李奎遠)이 그리게 한 『울릉도외도(鬱陵島外圖)』【사진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규원은 울릉도 동서를 '60리', 남북을 '50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규원은 박석창이 '소위 우산도'로 한 소도를 '죽도(竹島)라고 하고, 울릉도 우측 위에는 '섬목(島項)'을 그려, 그것을 인근 소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⑩】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와 그 확대부분, 섬목 (島項) 과 다케시마 (竹島) 라고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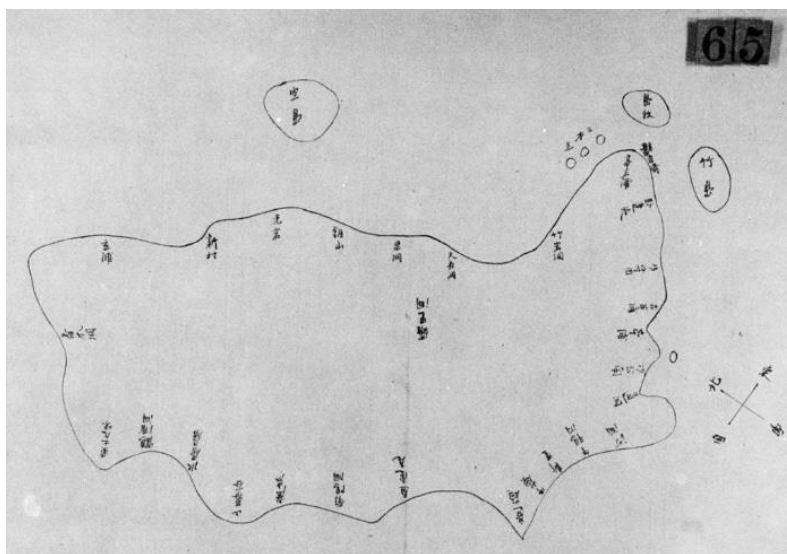
검찰사 이규원은 『울릉도외도』 이외에 『울릉도내도(鬱陵島內圖)』를 남기고 있습니다. 『울릉도내도』는 울릉도 내부를 묘사하고, 『울릉도외도』에서는 울릉도 주변 도서 및 암초를 그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울릉도외도』에도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칙령 제 41호」이 공포하게 되었던 것은, 울릉도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벌목 등이 이어져,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칙령 제 41호」가 공포되었던 이유 중 하나로, '몇 해 전부터 외국인의 불법 정착과 밀무역'에서 관할부서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내부시찰관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禹用鼎) 등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조사를 명했던 것입니다. 그 때 일본측으로부터 부산영사관 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가 동행했습니다. 이러한 한일 합동조사는 1900년 6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었고, 아카쓰카 쇼스케의 복명서인 『울릉도산림조사개황(鬱陵島山林調查概況)』에는 울릉도 강역이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한국 강원도에 부속된 도서로, 마쓰시마 또는 다케시마라고 칭한다. (분주) 동경 130도 82분 2초, 북위 37도 5분, (중략) 동서 약 6리(哩, 마일(1마일은 약 1.6킬로)) 이상, 남북 약 4마일 이상, 주변 약 20마일.

이것은 명확히 울릉도 한 섬을 말합니다. 게다가 아카쓰카 쇼스케의 『울릉도산림조사개황』에는 울릉도 지도【사진⑬】가 첨부되었는데, 그 지도에는 울릉도 본도 외에 부속 도서로서 '다케시마', '섬목(島牧)', '공도(空島)' 세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⑬】 아카쓰카 쇼스케의 「울릉도도(鬱陵島圖)」 (『울릉도산림조사개황』 수록) 1900년

空島(孔岩), 島牧(島項), 竹島(于山島)

이 세 섬은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서 다케시마(죽도)와 섬목(島項), 공암(孔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섬목(島項)이 '섬목(島牧)'라고 표기된 것은, 섬목(島項)을 한국어 발음 (섬목)에 맞춰, 한자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공도(空島)' 또한 마찬가지로, 공암(孔岩)을 섬으로 판단하여, 한국어 음(音)에 따라 '空(공)島'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아카쓰카 쇼스케가 제출한 울릉도지도는 수토사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을 비롯하여, 이규원에서 완성한 『울릉도외도』를 바탕으로 답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카쓰카 쇼스케가 가리킨 울릉도 강역은, 시찰위원 우용정이 보고한 울릉도 강역과 겹쳐 있습니다. 「칙령 제 41호」가 1900년 10월 25일에 공포되었던 것은, 이러한 우용정의 보고를 받아,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가 전 날 10월 24일, <울릉도를 울도(鬱島)라고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請議書)>를 의정부 회의에 제출한 것에 의합니다. 그리고 이 『청의서』에는 울릉도 범위가 '해당 섬 지방은 종(縱) 80리(里)이고, 횡(橫) 50리'라고 명기되어 있던 것입니다. 『청의서』 중에 울릉도 강역을 '종 80리이고, 횡 50리'라고 한 숫자는, 1711년에 수토사 박석창이 작도한 『울릉도도형』에서 유래합니다. 이 사실은 「칙령 제 41호」에서 울도군 관할구역으로 되었던 '울릉 전도와 다케시마, 석도'에는 독도(다케시마)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시찰위원 우용정이 울릉도에 파견되기 전 해, 대한제국에서는 현채(玄采)가 역집(譯輯)한 『대한지지(大韓地誌)』(1899년)가 간행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제국 강역을 "동경 124도 30분을 시작으로 130도 35분에 이른다"고 명기되어, '동경 130도 35분'을 대한제국 동쪽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 다케시마(독도)는 당연히 대한제국 강역 외에 있게 됩니다. 더욱이 우용정 일행의 울릉도 시찰은 울릉도를 일주(一周)만 한 것만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우용정 일행은 다케시마(독도)에 건너가지 않고, 그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다케시마(독도)를 석도라고 하여, 울도군 관할구역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칙령 제 41호」에서 울도군 관할구역으로 된 다케시마와 석도는, 울릉도의 어느 작은 섬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와 그 복명서인 『계초본(啓草本)』과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에서 확인해 보면, 울릉도 부속섬에는 다케시마(죽도)와 섬목 두 섬이 있습니다.

여기 다케시마(죽도)는 울릉도 동쪽 약 2킬로에 위치한, 1711년 수토사 박석창이 그리게 한 『울릉도도형』에서 '소위 우산도'라고 부기된 죽서로,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섬인 '석도'는 이규원이 『울릉도검찰일기』에서 '단지 대나무 밭이 있을 뿐'이라고 한 '섬목'이게 됩니다. 울릉도 시찰에 방문한 우용정 일행은, 이규원의 『울릉도외도』를 기본으로 한 지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석도가 섬목이었던 사실은, 1909년 간행한 해도 306호 「죽변만지수원단(竹邊灣至水源端)」【사진⑭】에 기록된 섬목 표기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島項이 鼠項島(서목도)「Somoku Somu」라고 되어, 한국어 발음을 빌려 읽는 방법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鼠項島の 鼠項을, 전통적인 반절차자(反切借字)로 읽으면, 鼠項島는 石島([Soku=石] 도)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절차자(反切借字)는 두 글자(字)를 쓰고 반절하여, 하나의 음(音)으로 읽게 하는 방법으로, 서목의 서(So)의 처음 모음 O와, 항(moku)의 처음 자음 m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서목(So moku)에서 o m이 없어지고 Soku(石)이 되어, 鼠項은 石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⑭】海道 306호(「죽변만지수원단」) 부분, 1909년

서목도(Somoku somu) 죽서(Tei soku)

「칙령 제 41호」에서 울도군 관할 지역으로 되었던 '울릉 전도와 다케시마, 석도'는, 어느 것이나 한자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섬목만은 한자음이 아닌, 한국어 발음을 한자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규원은 『울릉도검찰일기』 중에, 섬목을 "모양이 누워있는 소와 같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서목(鼠項)을 섬목(島項)과 똑같이 한국어로 [So moku]라고 읽으면, '소의 목(항=목덜미)'라는 의미가 됩니다. 더욱이 실제 섬목의 외형은 바위섬(岩島)에 해장죽(海藏竹)이 무성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소의 목덜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칙령 제 41호」에서 울도군 관할구역을 '울릉도 전도 및 다케시마, 석도'라고 할 때에 한국어적 섬목을 한자음으로 고쳐 표기하면, 석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칙령 제 41호」에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 41호」를 공포하고, 다케시마(독도)를 한국령

으로 했다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칙령 제 41호」에서 울도군 관할구역으로 된 석도가 울릉도의 오른쪽 위에 위치한 섬목이었던 것입니다. 1900년 시점에서도 다케시마(독도)는 한국령이 아니었습니다.

10) 일본은 1905년 한국의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했다

여기까지 읽어 보셨다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 그것은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것이다"라고 일본을 비난하고, 『독도 바로 알기』가 일본은 1905년에 한국의 독도를 '무주지'로서 편입했다고 비판합니다만, 그러한 주장이 올바른지 어떤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독도는 512년 신라시대 이사부가 우산국을 공격했을 때에 한국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달랐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독도(다케시마)가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우산도도 후세의 지지(地誌)에서는 실재하지 않은 섬으로 삭제되었고, 최종적으로 울릉도의 동쪽 약 2킬로에 있는 죽서로 되었는데,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 2킬로에 있는 죽서가 된 것은, 1711년에 울릉도 수토사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소위 우산도'라고 부기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은 안용복 사건이 있었던 이후, 조선정부가 울릉도에 수토사를 보내서 울릉도 현지조사를 보고시킨 것이었습니다. 안용복은 "우산은 왜(倭)의 마쓰시마다. 이것도 조선의 영토다"라고 공술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지 조사결과, 우산도는 울릉도 동쪽 2킬로에 있는 죽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도는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도 답습되어, 울릉도 오른쪽에 그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상기가 『동국대지도』 등에서 울릉도 오른쪽에 우산도를 그리기 이전에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八道總圖)」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산도는 조선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정부가 수토사를 울릉도에 파견한 것으로, 『울릉도도형』이 작도되고, 우산도는 울릉도 오른쪽, 또는 오른쪽 위에 그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우산도라고 칭해 왔던 소도(小島, 작은 섬)는 죽서로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 대해 학습자에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아이들은 「팔도총도」의 우산도와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 그려진 우산도(죽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독도 바로 알기』를 보면 정상기의 『동국대지도』 계통을 이어 『아국총도(我國總圖)』의 우산도를 독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기의 『동국대지도』 계통의 지도에 그려진 우산도는 죽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박석창의 『울릉도도형』를 가르치지 않고,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 그려진 우산도를 독도(다케시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점양』

도(三國接壤圖)』에 다케시마(울릉도)가 그려지고, 그 오른쪽 위에 작은 섬이 있으면 그것을 독도로 해 버린 것입니다.

한국의 아이들도 그 편지에 “하야시 시헤이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쓴 것은, 박석창이 복명한 『울릉도도형』에 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현재의 죽서에 ‘소위 우산도’라고 부기했던 것은, 안용복이 “우산은 왜(倭)의 마쓰시마다. 이것도 조선의 영토다”라고 공술한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죽서에 ‘소위 우산도’라고 부기했던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을 기초로, 『동국대지도』를 작도한 것이 정상기입니다. 정상기가 작성한 조선 지도에 우산도는 죽서로 되어서, 후세의 조선지도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산은 왜(倭)의 마쓰시마다”라고 말한 안용복의 증언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안용복이 돛토리번을 향해 밀항해 왔을 때,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유래하는 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용복은 거기에 그려진 우산도를 ‘왜(倭)의 마쓰시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유래하는 우산도는, 후세의 지지(地誌)로부터는 삭제되어, 그 존재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그려진 우산도와,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소위 우산도’라고 했던 우산도에는 연속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헌이나 고지도에 우산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현재의 독도(다케시마)로 바꿔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헌이나 고지도를 확인하지 않고,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이나 정상기의 『동국대지도』를 해석할 때에는 그곳에 우산도가 있다고 해서 같은 우산도였는지, 그것이 작도된 경위나 역사적 배경 등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1877년의 ‘태정관 지령’에 대한 이해에서도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해서, 시마네현이 제출한 『이소다케시마 약도』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다케시마)가 그려져 있으면, 그 ‘외 일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해석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당시 지도나 해도에서는 다케시마(독도)를 ‘울리부차’, ‘메넬라이’, ‘리앙쿠르암’ 등으로 표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마네현이 제출한 『이소다케시마 약도』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다케시마는 마쓰시마로 하여 근세까지 호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정관 지령이 하달되었던 때의 해도와 지도에는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되었고,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는 다케시마로써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마네현이 제출한 『이소다케시마 약도』 속의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지령했던 태정관의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현재의 다케시마가 일본령에 편입되었을 때, 오키 도사인 히가시 분스케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통칭하는 것도 사실은 마쓰시마를 말하는 것으로, 해도(海圖)를 보아도 분명하고 명백하다 하겠다”라고 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정관 지령’의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한 부분만을 보고, 외 일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이러한 ‘태정관 지령’에 의해 일본은 다케시마를 “일본령이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그 ‘외 일도’라고 된 마쓰시마는 ‘태정관 지령’ 3년 후에 울릉도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한 문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칙령 제 41호」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이 대한제국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만, 여기에도 검증(문헌 비판)이 필요합니다. 「칙령 제 41호」에 있는 석도는 『독도 바로 알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전라도 지방의 발음에 유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반절(反切)에 의해 한국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울릉도외도』의 섬목(島項, 서목도)을 읽는 것입니다. 울도군 관할구역으로 된 ‘울릉도 전도 및 다케시마, 석도’ 중 석도는 섬목(서목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방법은 「칙령 제 41호」가 공포하게 되었던 시찰위원 우용정 일행의 조사보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용정 일행의 조사 보고를 받아, 이견하가 의정부 회의에 제출한 <울릉도를 울도(鬱島)라고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請議書)>에는, 울릉도 범위가 ‘해당 섬 지방은 종(縱) 80리이고, 횡(橫) 50리’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 의해 확립된 울릉도 강역과 같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박석창의 『울릉도도형』과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는 독도(다케시마)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칙령 제 41호」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독도는 한국령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칙령 제 41호」가 공포되었을 때에도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령도 한국령도 아닌 무주지였던 것입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편입했습니다. 그 때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를 “타국이 이것(다케시마)을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다고 하여,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 인정하고, “일본 소속으로 하여 시마네현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이 ‘무주지’ 다케시마를 선점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령이었다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 맺은 말

1)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는 왜 역사문제가 일어나는가?

『독도 바로 알기』에서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배운 한국 중학생 여러분은 당연히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일본 중학생들의 지식은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의무교육 수업으로 다케시마 문제가 정식으로 취득된 것은 초등학교가 2020년도, 중학교에서는 2021년도부터입니다. 그것도 다케시마 문제뿐만 아닌, 센카쿠(尖閣) 제도에 관련된 수업도 포함해 행하여 진 것입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독도에 관한 교재(『독도 바로 알기』)가 개발되면서 다케시마 문제를 특화화

시킨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학교 교육의 장(場)에, 한국 중학생 여러분으로부터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으면, 중학생들은 물론 지도하는 선생님들조차 당황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한국측에서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망설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한국 중학생 여러분이 편지를 보내 주어도, 일본 중학생들과의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는 왜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한일 중학생이, 자신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휘둘리게 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원래라면 다케시마와 같은 영토 문제(한국에서는 역사문제로 보고 있습니다)는, 마땅히 어른들이 해결해 두어야 할 외교과제입니다. 그러한 한일 어른들이 중학생 여러분에게 다케시마 문제를 배우게 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여기 소책자의 도입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자세는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다케시마 문제 해결을 지체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케시마 문제는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공해상에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여, 그 속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킨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케시마는 이미 1905년 시점에서 일본령으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안했습니다만, 한국정부는 거부했습니다. 그 때 한국정부가 보였던 것이 "독도는 일본 침략으로 희생된 최초의 한국 영토"라는 역사인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과거의 역사 해석을 근거로 한 역사문제라고 이해하고, 일본에서는 영토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자세와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마네현이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은 참으로 과거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하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역사교과서문제'나 '위안부문제', '일본해 호칭문제' 등 많은 역사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측에서는 일본과의 과거를 문제 삼아 '과거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 일본측으로부터 반론이나 주장이 나오면, 이번에는 '과거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자신들의 '역사인식'을 근거로, 일본에 사죄나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인식'과 '역사적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소책자를 읽은 한일 중학생 여러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역사인식'에서 편찬된 『독도 바로 알기』와 여기 소책자(『한일 중학생이 다케시마(독도) 문제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日韓の

中学生が竹島(獨島)問題で考えるべきこと』)에는, 똑같은 문헌 해석에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논거로 인용한 문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인해, '역사적 사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우산도와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의 우산도

사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는 같은 우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도는 전혀 다른 우산도였습니다. 정상기의 『동국대지도』(18세기 중엽 성립)에 그려져 있던 우산도는 박석창의 『울릉도도형』(1711년)에 유래한 죽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는 어찌하여 우산도(죽서)가 그려져 있던 것일까요?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 대해서 "이 지도에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를 말합니다"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우산도는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해장죽전(海長竹田)/소위 우산도(所謂于山島)'라고 표기된 현재의 죽서였습니다.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은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도 영향을 주어, 후세의 울릉도지도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외형』도 그 중 하나입니다만, 「칙령 제 41호」에서 울도군 행정구역으로 된 강역 또한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종(縱)으로 80리, 횡(橫)으로 50리'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중요한 것은 다케시마(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규원의 『울릉도외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 부속섬으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안용복의 밀항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에 수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도형』이 작도되었습니다. 그 후 『울릉도외형』 계통의 울릉도도(鬱陵島圖)에서는 현재의 죽서를 '소위 우산도' 혹은 우산도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외형』에서는 박석창이 '소위 우산도'로 한 작은 섬(小島)을 '다케시마'로 표기했습니다. 이 다케시마(죽서)가 「칙령 제 41호」의 제 2조로, 울도군 행정구역으로 된 '울릉 전도와 다케시마, 석도'의 다케시마입니다.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을 시작으로, 정상기의 『동국대지도』, 이규원의 『울릉도외형』 등의 우산도는 모두 오늘날 독도(다케시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는 독도(다케시마)였던 것일까요? 이 우산도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저본으로 해서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이후에 『신증 동국여지승람』) 기록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일설에 의하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다(一說, 于山鬱陵本一島)"라고 하여, 우산도와 울릉도를 동도이명(同島異名, 같은 섬이 다른 이름을 하고 있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섬(本一島)'으로 한 것은,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을 당시 우산도와 울릉도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시대에 편찬되었던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의 ‘울진현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진현조’의 본문에서는 울릉도만을 기재하고, 분주에서는 우산도와 무릉도(武陵島, 울릉도)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일설에 의하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고려사』 「지리지」의 ‘울진현조’에서는 “한편으로 우산도, 무릉도는 본래 두 섬(一云, 于山武陵本二島)”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혼란은 우산도와 울릉도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독도(다케시마)에 관한 기록 또한 없습니다. 이로 인해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우산도는 울릉도와 동도이명(同島異名)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석창의 『울릉도도형』 이후, 우산도는 울릉도 동쪽 2킬로에 있는 죽서가 되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답습한 『여지도서』나 『대동지지』 등에서는 우산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는 울릉도 동쪽 2킬로에 있는 죽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산도는 독도다”라는 전제(역사인식)하에서 『세종실록』 「지리지」를 해석하는 한, 그 우산도는 독도(다케시마)가 됩니다. 이것은 ‘역사인식’에서 역사를 말하는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역사문제로서,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를 독도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헌이나 사료를 사용하여, 그 사실을 논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은 ‘문헌 비판’ 또는 ‘사료 비판’이라고 말합니다만, 독도(다케시마) 문제를 ‘역사문제’로 할 경우 그 작업은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를 해석할 때,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은 독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산도는 독도임에 틀림없다는 식의 해석은 문헌 비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지지(地志)는 편찬방침으로서 ‘규식(規式)’이 있으며, 그것에 의거하여 편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울릉도와 같은 도서(島嶼)의 경우, 관찰하는 관청에서 도서까지의 거리와 방향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는 편찬방침에 따라 읽기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보이다’는 울릉도를 관찰하는 울진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은 독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산도는 독도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해석은 “우산도는 독도다”라는 전제로 한 해석일 뿐, 역사연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규식’의 존재는 인정하고 문헌을 해석하는 것과,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은 독도밖에 없다고 하는 해석에는 전혀 다른 역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3) 문헌비판의 중요성

그렇다면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어찌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를 ‘독도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동국문헌비고』 「여지도」에, “우산은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다”라고 한 기술을 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헌 비판을 해 보면, 그 “우산은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 부분은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기 전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국문헌비고』 「여지도」가 편찬되는 과정에서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다"가 "우산은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라고 고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산은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라고 고쳐 쓰여진 것일까요? 그것은 뚝토리번에 밀항한 안용복이, 귀국 후 "마쓰시마는 즉 우산도다. 이것도 조선의 영토다"라고 공술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안용복의 공술이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편찬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저본이 되었던 신경준의 『강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국문헌비고』(「여지고」)를 편찬했던 신경준 등은 안용복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다"를 "우산은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라고 고쳐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용복이 "마쓰시마는 즉 우산도다. 이것도 조선의 영토다"라고 했던 우산도는, 마쓰시마(독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뚝토리번에 밀항했을 때, 안용복이 지참했던 「조선팔도지도」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조선지도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조선지도」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의 우산도는 조선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고, 그 넓이도 울릉도의 3분의 2 정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섬은 실재하지 않습니다. 안용복은 그러한 실재하지 않은 우산도를 마쓰시마(다케시마)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측의 독도(다케시마) 연구에서는, 안용복의 공술에 대한 검증을 한 적이 없으며,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우산도는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를 근거로,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서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우산도는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다"는, 그 편찬 과정에서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이다"가 고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안용복이 "마쓰시마는 즉 우산도다. 이것도 조선의 영토다"라고 했던 우산도도, 그것은 『신증 동국여지승람』 중에 실재하지 않는 우산도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안용복이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라고 했던 우산도는 『여지도서』나 『대동지지』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우산은 즉 왜(倭, 일본)의 소위 마쓰시마다"를 근거로, "우산도는 독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용복의 위증을 기초로, 고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우산도는 독도다"라는 '역사인식'과 역사적 사실은 서로 다르며, 또한 독도(다케시마) 문제를 '역사인식'으로 말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한일 역사문제에서는 예외 없이 그러한 '역사인식'으로 일본 비판을 하고, 뒤이어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며, '과거청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는 듯합니다.

4) '역사인식'에서 요구되는 '과거청산'

실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해 호칭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측의 주장에 의하면, 동해 호칭은 2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929년 국제수로

국에서 『대양(大洋)과 바다의 경계(大洋と海の境界)』가 편찬되었을 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그 때문에 한국은 동해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독도가 일본해 안에 있는 것은 마치 독도가 일본 영해 안에 있는 것이기에 부적절하며, 일본해는 동해로 마땅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일본해 호칭문제(동해 병기문제)'도 한국측의 '역사인식'이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서 한국에서 일본해를 동해로 호칭하게 되었던 것은 20세기 중반으로, 2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박은식(朴殷植)의 『한국통사(韓國痛史)』(1915년 간행)에서도 한국의 "경계는 동쪽, 푸른 바다(滄海) 연안을 따라 일본해를 사이에 두고"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연안부분의 푸른 바다와 외양(外洋,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바다)의 일본해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해 - 또는 말하길 푸른 바다 - 일본해 일부"라고 보도한, 1926년 7월 1일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동해가 일본해 전체로까지 확대된 것은, 일본 식민통치가 끝난 1945년 이후의 일입니다. 1946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는 '동해인가? 일본해인가?'라는 제목으로 일본해 호칭을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해를 동해라고 부르게 된 것은 2000년 전이 아닌, 20세기 중반부터입니다. 그것을 한국에서는 일본해 호칭을 2000년 전부터 사용해 왔던 동해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부터 일본해를 동해로 호칭했다고 하는 '역사인식'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하는 '역사문제' 대부분은 문헌을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측에게 '과거청산'을 촉구하며, 사죄나 반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한국측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지 않는 일본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제 출발점은 다케시마 문제로 시작된 '역사인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제'는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똑같은 역사논쟁이 반복되어 갈 것입니다.

5) 한일 간 상호이해 수단으로서의 다케시마(독도) 문제

이번에 만든 소책자(『한일 중학생이 다케시마(독도) 문제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를 쓰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일 중학생 여러분에게는 '역사인식'과 '역사적 사실'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2018년 이후, 시마네현 중학교에서는 한국 중학생 여러분으로부터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해 쓴 편지나 엽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나 엽서를 읽고, 한국 중학생 여러분이 『독도 바로 알기』에서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편지를 보낸 한국 중학생들에게는 편지를 읽고 생각난 점, 느낀 점을 정리해서 답장을 써 보냈습니다. 아직 한국 중학생들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한국 중학생과 같이 자신이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용기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한국 중학생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헛되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독도 바로 알기』로 공부한 한국 중학생 여러분과, 한국 중학생 여러분이 보낸 편지를 받은 일본 중학생 모두가 함께 읽고, 생각하는 책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학생 여러분이 다케시마(독도) 문제라는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에 한정하지 않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면 오해나 불신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오해나 불신감을 방치한 채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한다면 상호이해는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 또한 멀어지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 중학생 여러분에게는 옛 세대의 사고방식에 얽매이는 일 없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의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도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한일 상호이해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 한국과 일본 중학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세대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한국 중학생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해서 한국어로 번역한 답장을 써서 「Web 다케시마 문제연구소(竹島問題研究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 봐 주십시오. 일본어판도 「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index.data/hagakikankoku.pdf>)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index.data/SMBschoolK.pdf>)